

## 가스공사, 사무라이본드 300억엔 발행

한국가스공사는 7월11일 300억엔(3억7000만달러) 상당의 5년 만기 사무라이 본드 발행을 통한 자금 차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으로, 발행조건은 일본 은행간 5년 물 스왑 금리에 일부 가산 금리를 더한 1.38%이다.

가스공사는 2005년 이후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발행에 성공한 장기 사무라이 본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010년부터 달러 채권시장 외에 스위스 채권시장 등으로 자금조달 루트의 다변화를 시도했다”면서 “조달한 금액은 주로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7/11>